

도민 의견 제대로 알아야 저출생 문제 바로잡는다

전국이 인정한 경북 '도시숲'

도, 10월까지 저출생 해결 위한 사회개혁 정책요구 용역 실시
출산·돌봄·안심 주거·워라밸 등 저출생과 전쟁 100대 과제 관련 도민 의견 수렴·정책 수요 파악
도출 결과 따라 예산편성 반영 우선순위 결정·추진 방향 모색

경북도가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생과 전쟁을 위한 사회개혁의 정책요구를 조사한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연구용역'을 준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5월에 발굴된 100대 실행 과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 체감도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IPA 분석 기법은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화·서비스의 이용 전의 중요도, 이용 후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안



도심 속 워터파크서 무더위 '썩~'

한옥펜션인 옥부촌을 비롯해 호국야영장, 문무 야외수영장 및 축구장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화랑마을이 연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1일 화랑마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기준 행사와 청소년 워크숍이 주를 이루는 시설대관의 경우 하루 방문객은 300명 이상이다. 이 추세로 감안하면 폐장일인 오는 25까지 누적 인원은 8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는 20~40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3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보정한다. 특히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6대 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 필요도와 중요도를 단계별로 파악해 예산 투입 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찾은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6대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 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집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 선정
포항 철길숲·송도솔밭 도시숲
경주 신라왕경숲·경북천년숲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에서 경북의 포항 철길숲,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 경주 신라왕경숲,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경북의 우수한 도시숲 관리와 조성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며 경북 내 선정된 도시숲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포항 철길숲은 옛 철길을 따라 조성돼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로이다. 철길과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뛰어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주 신라왕경숲은 신라 유적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은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정원 디자인으로 방문객에게 큰 감동을 주며 최근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숲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의 5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받아 전국에서 916곳의 도시 숲이 신청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기념 방문 이벤트를 이달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된 도시 숲을 방문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배너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도시 숲 경관과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에 올리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본선' 4일간 열전 돌입

오늘부터 엑스코 서관서 진행
13개 종목 32부문 1976명 참가

미래 로봇 꿈나무들이 직접 제작·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우열을 가리는 '2024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12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

에서 개최된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 로봇에 대한 흥미 유발과 관심을 유도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및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신장 등 로봇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창설된 대회로 올해로 26회를 맞게 된다. 대구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IROC)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올림피아드(KROC), 대한로봇스포츠협회(KRSA)가 주관하는 "2024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은 전국 1976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3개 종목 32개 부문에 참가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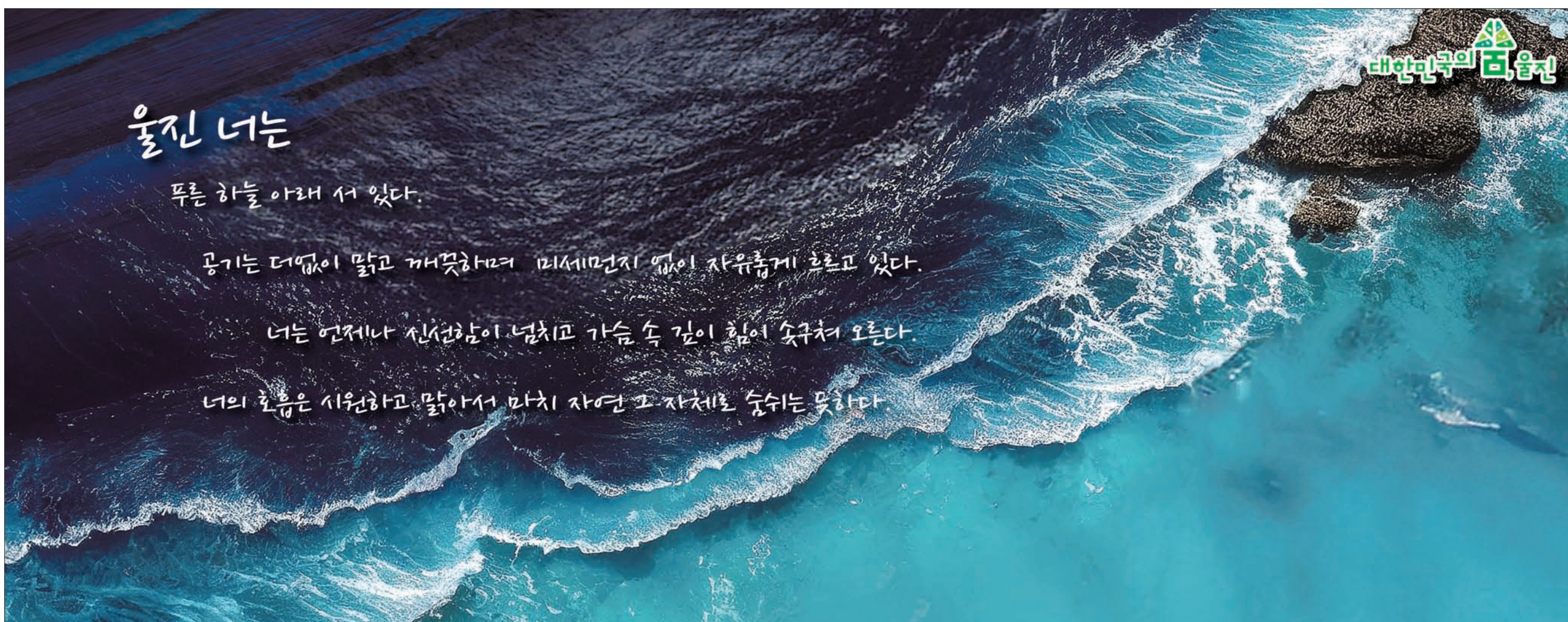
목표물을 빠른 시간 내 지정구역으로 이동하고 도착지점에 도착해야 하는 로봇에스레릭스, 로봇을 조정해 제한시간 안에 장애물을 회피해 상대 팀보다 빠르게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테

그아웃 등의 주요 종목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는 서울, 대전, 부산에서 진행된 예선에 참가한 전국 3600명 중 상위 입상자들이 한국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되므로 각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봇 대중화 및 조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로봇 슈팅 종목과 로봇 어질리티 종목을 신규 시범종목으로 도입한다. 최은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은 로봇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장으로 이는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심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한국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위해 로봇 슈팅 종목과 로봇 어질리티 종목을 신규 시범종목으로 도입한다. 최은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은 로봇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장으로 이는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심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한국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YouTube 경상투데이



한동훈, 용산에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 전달

“지난주부터 대통령실에서 의견 물어와”...친운 비판에 반박
“공식라인 통해 반대...복권, 대통령 고유권한 부정은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이미 지난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뉴스1에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한 대표에게 직접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한 대표는 공식 라인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한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친운계(친윤석열계) 일각에서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소통은 지난주부터

물밑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면, 복권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며 “한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대표 의견을 직접 물어왔고 한 대표도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민심을 전달할 수 있으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대해선 보도 이후 인지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던 기사는 지난 8일 처음으로 보도됐다. 한 대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뉴스1



“수해민의 빠른 일상 회복 기원합니다”

영주시의회, 영양군 방문해 수해 지원금 150만원 전달

영주시의회가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시의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뤄졌다.
지난 8일 김병기 의장은 군청을 방문해 1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군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영양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영주시의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이만희 의원 “중단없는 지역발전·주민행복 위해 앞장설 것”



영천시,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275억 투입해 학생 편의 증진 매진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 등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설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영천시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는 국비 137억5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원을 활용해 노후된 급호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학교복합 시설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주민

시청 및 경북도 교육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목욕탕 건립을 비롯한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잘 건립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화랑대기 선수 안전 ‘힘’

알천구장 등 운영현황 점검 대회 참가 선수·관계자 격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난 10일 ‘2024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대회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2024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지난 5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총 610개 팀에서 1만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주시민운동장을 비롯해 축구공원, 알천구장, 화랑마을, 스마트에어 돔구장에서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중국 시안시에서도 각 1개의 유소년축구팀이 참석해 경주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상대팀과의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동협 의장과 김형규·최영기 의원은 이날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알천구장 등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동협 의장은 “스마트 에어돔 구장

을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주에서 참가선수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둬 미래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무더운 날

씨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경기 진행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대회관계자와 경주시가 폭염과 부상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초청 한반도 핵 균형 필요성 관련 토론회

UPF(Universal Peace Federation, 세계평화연합)는 지난 9일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남북 핵 균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26차 신한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성장 센터장을 비롯해 양창식 UPF 세계의장,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회장, 정동원 UPF 부회장,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김수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문병철 신통일정책연구소 박사 등 각계 지도자와 평화대사, 평화에원 등 평·통일 운동가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상필 통일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강연에 앞서 양창식 의장은 민족분단의 현실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일

수록 UPF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에 의식 있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통일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한반도 북핵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가이다.
이날 정성장 센터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연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미국의 확장억제 약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강연 이후에는 김수민 명예교수(선문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논평자로 나선 김일기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와 문병철 박사(UPF 통일정책연구소)는 논평을 통해서 핵무장 시도로 인해 발생할 국제 관계와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요소들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핵무장론보다는 평화를 위한 초당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함께하는 릴레이 헌혈 '눈길'

경북도4H연합회·농기원 협력 의료기관 혈액 부족 해소 위해 헌혈증 모아 소아암 환자에 기증 지역사회 연대·생명 존중 실천



경북도4H연합회는 경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돕고 의료기관의 혈액 부족 위기를 청년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 극복하고자 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먼저 지난 8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작해 경북도 내 21개 시·군 4H연합회로 확대, 릴레이로 펼쳐지며 경북 각지에서 모은 헌혈증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기증될 계획이다.

경북도4H연합회는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원들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금 기탁,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헌혈 캠페인 역시 지역사회와

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4H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노구완 경북도4H연합회장은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부 활동이므로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북도4H연합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영숙 원장은 "경북도4H연합회의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서 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개발공 "도민 기대 부응하는 기업될 것"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위 '영예' ESG경영 선도 등 성과 인정받아 차기 평가 '가 등급' 재도약 의지

△경북도 ESG 확산 협의회 구성을 통한 ESG경영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재혁 사장의 취임 3년차인 지난해는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경북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2위로 '나 등급'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산업단지 2개 지역(울진, 안동) 사업시행자 참여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200호(도단위 최대 규모) 약 정 체결 △저출생 문제 적극 대응을 위한 양육친화형 공공임대 '행복드림주택' 756세대 공급 예정 △22개 시·군 상생협력 플랫폼 '두레마당' 발족으로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울진 육상풍력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정렴도 평가에서 지방공사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고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성과는 도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북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개발공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판삼아 지역활력 회복, 저출생 대응 등 국가정책 및 도정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북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차기년도 평가시 '가 등급'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보문·안동레이크골프클럽에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 즐겨요

다자녀 가정 평일 사용료 50% 할인 경북문화관광공사, 저출생 극복 '힘'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저출생 극복 및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공사에서 운영하는 보문·안동레이크골프클럽을 방문하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평일 그린피 50% 할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6일까지 3개월간 할인행사를 운영한 결과 △보문골프클럽 8158명(할인금액 4억4000만원) △안동레이크골프클럽 3608명(할인금액 1억7000만원)의 다자녀 가정 내장객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현 추세로는 △연말까지 총 2만7000명(할인액 13억원)의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혜택의 대상을 경북도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할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3개월간 지역별 이용객 분포는 △보문골프클럽 경북도민 42.5%, 경북도 이외 지역민 57.5%이며 △안동레이크골프클럽 경북도민 74.4%, 경북도 이외 지역민 25.6%로 나타났다.

또 이용객의 남녀 비율은 보문골프클럽 남성 81.7%, 여성 18.3%, 안동레이크골프클럽 남성 79.4%, 여성

20.6%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내장객 현황을 보면 경북도 이외 지역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6시간 가량 소요되는 골프의 특성상 경주 및 안동으로 1박 2일, 2박 3일 체류형 관광도 함께 즐기는 골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름 휴가를 맞아 서울에서 보문골프클럽을 찾은 한모(46)씨는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을 보고 두 가족이 경주로 하계휴가를 오게 됐다. 아이들은 마음껏 보문단지에서 놀고 부모들은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서 안동레이크골프

클럽을 찾은 최모(43)씨는 "수도권 골프장 요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지금 매출 감소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는 공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른 지역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일 사장은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대응 정책에 부응하는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111@hanmail.net



도-소방본부,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높인다

대응 매뉴얼·장비 사용 교육

경북도는 지난 9일 경북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자위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했다.

이번 소방 훈련은 질식 소화포 현장 시연, 조립식 수조 설치, 소방 차량 진입 불가 대비 소방호스 전개 등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초기진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과 질식 소화포 등 장비 사용 교육도 함께했다.

경북도 청사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화재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질식 소화포 등 초기진화 장비를 비치했으며 열화상카메라

및 열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대비하고 해마다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 및 대피 훈련을 한다.

앞으로 경북도는 화재 시 열폭주, 폭발 등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이 어려운 등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점차 이동 설치해 화재 시에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30일까지 '제65회 경북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 모집

경북도는 이달 30일까지 제65회 경북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65회 짝인 경북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956년 첫 시상식 후 반세기가 넘는 역사 동안 33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모집 분야는 문학, 체육, 언론, 문화, 학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간예술 총 8개 부문이며 자격요건은 경북도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공고일(8월 8일) 현재 2년 이상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북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 '도정 소식-고시 공고(15135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의회 의장, 수상 분야 관련 도 단위 기관과 단체장, 대학 총장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이달 말까지 경북도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후보자를 접수한 후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문화 경복을 실현하는 든든한 자양분이다"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많은 분이 추천받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대구시, 추석 명절 앞두고 음식점 '집중 점검' 영주소방서, 산모 안심출산 환경 조성 '일조'

건강기능식품 업소 등 203개소 27일까지 9개 시군과 위생 관리 중금속 검사·부적합 제품 폐기

대구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명절 다 소비식품 제조·판매 음식점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0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일 5개반 총 15명이 투입되며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각 반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명씩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달걀 사용 식품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냉면, 밀면 등 달걀(지단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대량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한식뷔페 등 최근 1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 성수식품 40건을 수거해 중금속 등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권울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직원과 119구급서비스 간담회 효율적인 지원·운영 방안 논의

영주소방서는 지난 8일 직원들과 새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간담회를 가졌다.

'새생명 탄생 119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영아를 포함한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119U안심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인 산모를 위한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가 안심콜서비스에 인적사항, 초산여부, 출산예정일, 태아상태 등을 등록하면 119신고부터 등록정보시스템에 표출돼 119구급대원이 임산부에 대한 사전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출산 예정인 임산부에게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문선 소방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심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영 기자jhy4430@hanmail.net

청도, 폭염 대처 긴급점검 회의...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폭염 대응현황·향후계획 논의 위기경보 비상단계 '심각' 격상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처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와 실무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폭염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도군은 현재 살수차량 운행,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그늘막 가동, 마을방송, 알람톡 발송, 폭염 취약계층



특별관리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군은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위기경보 비상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노동자, 고령농업인, 건강취약계층(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등 부서별 주요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김하수 군수는 "올해는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철저한 상황관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울진군,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나서



울진군은 지난 7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활동은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죽변 후정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에서 진행됐다.

해수욕장 근처 편의점 및 식당 등을 방문해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와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신분증 확인 생활

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OUT' 리플릿을 배부했다.

손병복 군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에 이어 13일 기성면 구산해수욕장에서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고령, 코로나19 환자 증가 추세 감염병 5대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령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호흡기감염증이 동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어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시유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집단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강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수 소장은 "마을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뿐만 아니라 급·만성 감염병의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했다"라며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원자력환경공, 방폐물 육·해상 운반 사고 대응력 함양 '힘'



해양수산청·원자력발전소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점검 '만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9일 중저준위 처분시설과 고리원전 인근 해상에서 방폐물 육·해상 운반 중 화재사고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단은 해마다 한차례씩 방폐물 육·해상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좌초,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방폐물 운반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방폐물 운반선 화재 사

고를 가상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원자력발전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공단은 방폐물 운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전과 같은 방폐물 운반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서정규 기자seoul411@hanmail.net

김천,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 방제 '최선'

김천시에서 지난 8일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협동 방제 작업을 했다.

이번 협동 방제에서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을 대상으로 다목적 방제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동원해 임도, 산림 연접지와 산림지역에 지상 방제를 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의 생활사를

고려해 적기에 방제를 시행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번 협동 방제를 했으며 방제 작업 이후 돌발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방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천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 중이며 산림 연접지 병충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방제를 해 돌발해충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옛 안강역, 주민 문화·체육거점으로 변신한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선정돼 내년까지 테니스장·축구장 조성 보행로·진입계단·녹지공간 추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효과 극대화

경주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에 '북경주 주민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강지역에 공설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경주시가 주민 접근성과 기존 폐철도 활용 사업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옛 안강역(남쪽) 일원 4040㎡ 면적에 내년도 12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테니스장 2면, 축구장 2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보행로, 진입계단, 녹지공간도 함께 만든다. 이로 인해 옛 안강역 일원은 앞서 추진 중인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 및 안강문화의뜰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돼 문화복합 복지 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생활체육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



지 커뮤니티 카페, 문화강좌실, 노인 복지회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 또 야외 문화활동 공간으로 '문화의 뜰'과 옛 안강역사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 선정으로 북경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스마트팜 농업 기술 혁신·인력 양성 '한번에'

38억 투입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원에 전문 교육장인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가 경주 내남면에 조성 중인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들어선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38억원 예산을 들여 내년 2월까지 면적 2690㎡, 높이 7.2m 규모의 작목별 재배 실습장과 온실구조교육장, 양액관리실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교육센터를 조성한다. 부대시설로는 강의실, 양액제조실습실, 저온저장고 등이 마련된다.

재배 실습장은 과채류, 딸기, 엽채류 품목별로 구성돼 스마트팜 농업 기초와 재배 기술 등의 이론교육과 연계한 작품의 전 생육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 온실구조교육장은 온실 지붕, 난방시설 등을 모형화해 작동 원리와 구조를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환경제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까지 스마트팜에 대해 원스톱으로 배울 수 있어 농업기술 혁신과 인력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신인 가수 등용문 정귀문 가요제, 예선 참가자 열기에 '활활'

본선무대 오를 15명 주인공 선발 심사위원 "매해 실력·수준 높아져"

경주가 낳은 작사가 故 정귀문 선생을 추모하는 '제3회 정귀문 가요제' 본선무대에 오를 15명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2024 정귀문 가요제 예선이 지난 10일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렸다. 정귀문 가요제가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전국으로 알려지며 가수 지망생 100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날 63명이 예선에 참여해 3시간 동안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예선 현장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이승협 경상투데이 대표 및 김효철 운영위원장, 배진석 도의원, 박귀룡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성훈·박종찬 경상투데이 운영위원, 권영부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및 출연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정귀문 가요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예심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5개 분야 54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는 가수협회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훈 작곡가는 "매마다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력이 뛰어나 심사하는 데 고심을 거쳐야 했다. 특히 젊은 층들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져 트로트의 세대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창의성, 음악성, 무



대 매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본선에 오르지 못한 참가자들도 모두 충분히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본선에서 이들의 더욱 빛나는 무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가요제는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봉황대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3회 정귀문 가요제 예선 결과는

13일 경상투데이 홈페이지 또는 본선 진출자 개인연락처로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故 정귀문 선생은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출생으로 평생을 현곡면에서 보냈으며 '마지막 잎새', '바다가 육지라면', '민낯날', '경주 아가씨' 등 1000여곡의 가사를 남기고 지난 2020년 작고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한수원, 육군과 자동예측진단시스템 교류

빅데이터·AI 기반 예측진단 모델 무기 등 성능 저하·고장시점 파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8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과 '빅데이터·AI 기반 설비자동예측진단시스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비자동예측진단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 핵심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 진단해 불시고장을 예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진단 모델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가동원전의 주요 회전·전력 설비의 감시·진단에 적용되고 있다.

육군은 무기체계와 구성 장비의 상태 분석을 통해 성능 저하 또는 고장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함으로써 장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체계 상태기반정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설비자동예측진단시스템의 데이터 및 운영 능력, 정비분야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육군의 군수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희승 품질기술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진단 및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수원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국방 분야에도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市, 청년·시민 동행 축제 '청년의 날' 개최

16·17일 오후 5~11시 봉황대 일원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시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봉황대(노동동 261) 일원에서 '제5회 경주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청룡의 해, 청년과 함께 해!' 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 위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경주시의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청년회의소 등이 후원한다. 행사 첫째 날인 오는 16일은 봉황대 뮤직스퀘어 공연으로 채워지며 이튿날인 17일은 오후 6시 기념식에 이어 청년밴드 및 초청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팝업스토어, 스탬프투어, 청년예술가 전시회, 청년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이를 모두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청년회의소가 후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청년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대구, 헬스장 기습 폐업에 소비자 피해 '급증' 대구동부소방, 드론 출동 시스템 '눈에 띄네'

운영 중단으로 피해 발생 잇달아 7월 기준 266건, 전년비 16.6%↑ 중도해지 시 자체 약관 이유 들어 계약해지·환급 거부 '연락 두절' 계약 전 후기참고·단기할부 유념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헬스장' 관련 접수건은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382건→266건) 감소했으나 최근 지역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필요로 보인다.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 (168건), 계약 불이행 16.9% (45건), 청약철회 4.5% (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고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중고거래를 통한 이용권 양도 혹은 휴회 권유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정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계약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7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414건의 헬스장 관련 상담 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을 보면 현금일시불 37.4% (117건), 신용카드 일시불 29.7% (93), 신용카드 할부 24.3% (76건) 순으로 나타나 일시불 결

제가 67.1%의 비중을 차지했다.

헬스장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볼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용약관 및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드시 받아둘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이용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기 등으로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최우수' 드론 출동 시스템 도입 '큰 호응'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동부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소방청이 주관하던 구조정책 연합대회와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안 연구발표대회를 통합해 보다 수

준 높은 정책 발굴의 장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된 대구동부소방서는 드론 출동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그 효과성을 다양한 훈련과 실험으로 활용방안을 도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DTRO, 종합교통기관 위상 우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 등 호평 도시철도분야 최상위 '가' 등급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4년도(2023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철도군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김기혁 사장 이하 전 임직원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 △안전 최우선 경영과 고객서비스 개선 △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대구형통합모빌리티 구축 노력 등의 높은 평가로 도시철도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차지했다.

먼저 공사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경영혁신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57억원의 비용절감과 610억원의 부대수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과제를 시행해 온 결과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대구시



의 운영비 지원금이 감소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또한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4년 연속 우수기관 2020-2023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2020-2023년)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호선 연장구간 및 4호선 건설의 차

질없는 업무추진과 함께 대구시 최초로 의뢰R&D지구 내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를 운영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미래 교통 트렌드에 발맞춰 모빌리티관련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구형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공직 유관단체 중 유일하

게 종합평정도 1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18년 연속 무분류 노사평화를 실현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지역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종합교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 100대 피아노'로 특별한 추억 선사

내달 28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달성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9월 28일 저녁 7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야마하 뮤직 코리아에서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정상급 출연진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포토존, 푸드트럭 등 부대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성한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의 예술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선정됐다. 김정원 예술감독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로 국내외 주요 콩쿠

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김정원 감독을 비롯해 '신박류오'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 그리고 젊은 피아니스트 최이삭이 파드별 리더를 맡아 100인 피아니스트 그룹을 이끌어 간다.

'달성 피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최연소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광현지휘자는 100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명곡들을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서 이 시대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조운성과 드러머 이상민, 베이스리스트 박재진으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가 재즈의 자유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사문진의 가을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장종찬기자gst3000@naver.com

군위, 2024 을지연습 대비 사전교육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

군위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는 '2024년 을지연습'을 대비해 지난 9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은 안보 동영상을 시작으로 을지연습 개요와 실시계획, 총무계획에 따른 조치 방안 및 실무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연습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총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안보관을 확립하고 을지연습의 주요 내용과 총무계획에 의한 대처 방안을 숙지했다.

서정화 안전관리과장은 "지난해 태풍 키는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군위군의 을지연습이 제외됐으나 올해는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니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을지연습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시 및 비상사태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도시개발공 청아람봉사단

국가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아람봉사단(단장 강경문)은 지난 7일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이사장 정진수)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완료했다.

이번 집수리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아람봉사단과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가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대구·경

북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상생협력 업무협약 활동의 일환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아람봉사단은 올해 2500만원을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에 후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는 대구 북구 지역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후손 세대를 선발하고 집수리를 수행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남교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영양 핫 페스티벌 3·6·9'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서 개최
영양고추엔 '3' 가지 영양소 풍부
김장 필수 '6' 가지 재료 등 선배
작년 행사장 평균 방문객 '9' 만명
군, 안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

오는 29일 서울의 심장을 붉게 물들일 '2024년 H.O.T페스티벌'이 시작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우리 민족이 항상 가까이 두고 즐기는 빨간 맛, '고추'에서 'H.O.T페스티벌'까지 알아두면 쓸데 있는 H.O.T페스티벌 잡학사전을 알아보자.

◆일년 중 '3' 일, '3' 가지 핵심 영양소
일년 중 단 '3' 일, 올해는 오는 29일에서 31일까지 고추계의 '에0메스' 영양고추를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2024년 H.O.T페스티벌'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산지 직송 고추를 사러 와도 좋고 단 순히 축제를 구경하러 와도 좋다. 24년 여름 맛 수확한 햇고추를 가장 양심적인 가격에 가장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콘크리트 도시 안에서 가장 자연적인 영양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올 8월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축제의 현장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영양고추는 왜 명품고추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을까? 뛰어난 맛은 기본,



다른 지역의 고추보다 풍부한 '3' 가지 영양소가 그 답이다. 당질은 전국평균보다(100g 기준) 1.6g, 섬유질은 1.1g 풍부하며 각종비타민 역시 전국평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 풍부하다. 여기에 색깔마저 곱고 선명하니 '땀만 땀만' 영양고추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즐거움 '6' 가지 프로그램, 김장 필수 '6' 가지 재료
눈으로만 보는 전시회가 아니다.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6'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된 'H.O.T 페스티벌'을 미리 살펴보자.
먼저 메인 무대 진행자에게 도전하

는 'MC를 이겨라!' 아쉽지만 이젠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눈대중으로 무게를 맞추는 '고추무게 맞추기', 칼솥씨를 겨뤄보는 '고추 얇게 썰기'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니 용기내어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한다.
'다임세일 행운의 톨렛'으로 명품 농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을 누리보시라.
불필요한 개막식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의미를 더해 서울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개회세레머니 행사' 직후 나눔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영양고추홍보사절 H.O.T퍼레이드'는 행사장의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김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6' 가지 재료. 고추, 배추, 소금, 마늘, 생강, 액젓 중 3가지 재료를 'H.O.T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다.
말이 필요없는 '영양고추', 바다의 보배 '신안소금', 마늘 중의 마늘 '의성 마늘'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김장준비는 'H.O.T페스티벌'을 추천한다.

◆평균 방문객 '9' 만명
'9' 만명, 은국민을 거리두게 만들었던 코로나-19시국 이후 2년 동안 개최된 'H.O.T페스티벌' 평균 방문객 숫자다. 작년 행사장에서 15억원 가량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재고가 조기 소진돼 직거래 주문만 추가로 6억원이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역시 주최측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인구 1만6000여명의 작은 시골, 그곳의 농가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겨울부터 모종을 준비하고 가장 무더운 8월 고추를 수확했다. 방문객들은 올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고추를, 농부들에게는 명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소비자를 만날 기회를 올해 'H.O.T페스티벌'이 제공할 것이다.
유난히 더웠던 8월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9' 월을 앞둔 여름 폭염보다 뜨거운 '2024년 H.O.T페스티벌'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안동시, 전국 지방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공시제 부문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고용률 2.5%P·청년고용 6.7%P ↑

안동시는 지난 8일 서울 엘타워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는 우리나라 대표 지역 일자리 시상식으로 안동시는 공시제 부문에서 1차 시도 평가와 2차 중앙 평가를 거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지역 3개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여건에 맞춘 자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공시제 목표인 7484개를 107% 달성한 7995개의 실적을 거뒀다.
이에 2023년 말 기준 15-64세 고용률 69.2%, 15-29세 청년고용률 40.5%로 전년 대비 각각 2.5%P, 6.7%P 상승하는 등 성과와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작년 말 경북도에서 주관한 시군 일자리창출 평가 종합실적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민선8기 추진 중인 일자리 분야 공약 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성과가 대외적으로 연이어 인정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영주, 농촌체험관광 브랜드 '잼나영주' 론칭

농촌체험·교육농장 10개소 선발
특징 부각한 캐릭터도 함께 개발



영주시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성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공동 브랜드 '잼나영주'를 개발했다. '잼나영주'는 '영주와 함께 재밌게 즐기자'는 의미로 영주의 다양한 즐거움을 약자지결한 손 모양으로 표현해 체면의 즐거움과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시는 이번 공동 브랜드 개발과 더불어 영주를 대표하는 농촌체험농장 및 농촌 교육농장 10개소를 선발해 농장별 특징을 부각한 캐릭터도 함께 개발했다.
또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여행' △농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여행 △섬과 치유를 찾는 농촌여행 등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엄선한 체험 프로그램을 보유한 농장을 소

개하는 전자 리플릿도 제작했다.
이번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농장은 △김창일 라삼 삼말타는 사람들_하트바 △말호체험학교 떡볶이 △베리베넷 딸기농장 △보승인삼사 △새오름 원예치유원 더가든 △선비촌한과 △솔향기 농촌체험휴양마을 △하늘기둥농장 △호수목장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영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과 연계해 9~10월 중 농촌체험학습 홍보행사를 진행해 10개 농장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본격' ... 학교복합시설 사업 최종 선정

국비 44억 추가 확보로 부담 덜어
구도심 시민 건강·생활 수준 UP

문경시는 지난 8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유유 학교 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칭 문경학생수영장은 문경중학교 운동장 내 위치하며 △지상 1층 수영센터(25m 6레인, 유아풀), 부대시설(샤워실, 탈의실 등) △지하 1층 기계실 △운동장 내 진입로 및 주차장 48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5월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나 문경중학교 일부 학부모와 동창회의 수영장 건립 위치 변경 요구에 따른 의견 수렴과 설계변경으로 계약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당초 사업비 74억원에서 자체비 및 민간비 상승으로 44억원이 증액돼 예산 부담이 가중됐으나, 이번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쾌적한 공공 수영장 건립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 교육 체계화 및 구도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um.net

예천군, 선리·공덕·낙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예천군은 8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리지구', '공덕지구', '낙

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

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리지구(268필지 29만6077㎡), 공덕지구(419필지, 32만8918㎡), 낙상1지구(718필지 75만3075.9㎡)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봉화군,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 힘쓴다

청렴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봉화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봉화군 청렴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추진협의회는 위원장(군수)을 비롯해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청렴시책 발굴 및 공유 등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사항의 중간 점검을 시작으로 7급 이상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영역에 대한 부패취약분야를 공유하고 사내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하반기 복무실태 점검 실시에 앞서 전 부서에 실시 내용을 공유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헤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칠곡군수 “軍 이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군위 편향·사회적 비용 지출 등 대구시에 공식 해명 요청 ‘눈길’ 郡, 민심·지역안정 ‘우선순위’ 군부대 유치 원점에서 재검토



인 해명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홍 시장이 군위군에서 열린 트롯페스티벌에 참석해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로의 군부대 이전을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유치가 나선 지자체에서는 대구시가 특정 지역을 밀어준다고 생각하

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앞두고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군위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갈등과 불신을 봉합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구·경북 통합 이후에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해결 방안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대구시가 추가로 요청한 군부대 터보다 크고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에 따른 소음과 화재가 우려되는 축구장 1580개에 달하는 1043만㎡ 규모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훈련장(사격장) 조성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보다 앞서 지자체로부터 군부대 유

치 신청을 받은 2022년 8월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며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군부대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과 지역 안정이기에 칠곡군은 대구시 군부대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결과를 떠나 원만한 사업 진행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대구·경북 통합과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와 국방부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군부대 4곳의 이전을 추진하자 경북도 칠곡군을 비롯해 영천시·상주시·의성군·대구 군위군 등 5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선남면 새마을회 “깨끗한 환경 만들어요”

버스승강장 17개소 환경정화 쓰레기 수거·물청소 등 실시

성주군 선남면 새마을회는 지난 9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7개소를 돌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임원 10여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더러워진 버스승강장을 돌며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바닥과 의자 물청소 등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선남면 거리

조성에 앞장섰다.

차중환 협의회장, 유차순 부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노경미 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김천, 규모 더 커진 지방 보조금... 공정·투명한 운용 ‘최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 신규 위촉 공모사업 심의·성과평가 등 진행



김천시는 지난 8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을 담당하고 김천시의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롭게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모사업 심의, 2023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2023년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충섭 시장은 “오늘 새롭게 위촉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2023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2023년 행사성 경비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예산편성 시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상주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청소년 ‘응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응시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8일 ‘2024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격을 응원하고 꿈드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은 교사장인 구미 천생중학교에서 응시생을 위한 차량 운행 및 점심 도시락, 합격기원 필기구 등을 지원했다.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포장한 아침 간식 꾸러미를, 학습지원단 멘토 선생님들도 잡쌀떡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지원, 학습지원단을 통한 멘토링 수업 등을 지원하며 올해 제2회 검정고시에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29명(중졸 3명, 고졸 26명)이 응시했다.

검정고시에 응시한 A양은 “꿈드림을 만나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취업지원, 상담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고령 ‘사회적경제 발굴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 성료

수상자 6팀 선정·창업 비용 지원

고령군과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지난 8일 ‘고령군 사회적경제 발굴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자 6팀을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팽하림 대표가 ‘지

역농산물을 활용한 딸기 단백질 모찌’ 아이디어로 대상에 선정됐고 ‘떡거리 만들기 및 봉산늬 생대체험’ 아이디어를 발표한 허자빈 대표가 최우수상, ‘지역농산물인 딸기를 활용한 수제맥주’ 아이디어를 제안한 장현덕 대표 및 ‘원에 치유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

안한 서해정 대표가 우수상 등 최종 6팀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6팀은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50만원(대상 기준)까지 지원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을 위한 토대

를 마련했으며 (사)지역과소셜비즈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컨설팅이,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창업 관련 후속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남철 군수는 “앞으로도 많은 창업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구미시가 지난 8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초청해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과 양육자 각각 맞춤형으로 진행됐으며 아동 대상으로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양육자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 문제 조기 발견 방법,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

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제공됐다.

교육에 참여한 양육자 김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용자 아이돌봄과장은 “구미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구미, 아동 대상 사이버범죄·중독예방 ‘힘’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순풍에 돛'

20일부터 구미~경산 시험 운행
12일간 하루 왕복 4회 정도 진행
연말 8개 역사 개통 준비 '분주'

경산시는 이달부터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건설사업의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자체 사전점검을 포함해 교통공단의 점검을 거쳐 최종 국토부의 기술기준을 통과했고 시설물검증 시험을 위해 시험 차량을 투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

시험 운행은 토·일요일로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운행 횟



수는 하루 왕복 4회 정도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사전점검에 대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는 9월 초까지 시험 운행을 완료하고 10월 초에는 실제 운행과 같은 조건으로 개통을 위한 영업 시운전을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중순에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초 순경 국토부의 최종 승인 후 12월 중순경 개통할 예정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하루 편도 기준 61회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평상시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61.9km, 역사 8개소(신축 3, 개량 5)로서 지난 2019년 3월 착공해 7개 역사에서 오는 11월 말 개통 예정이며 1개 역사는 내년 말까지 신축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도시 문제 해법 제시한 '그린웨이포럼' 성료

포항, 대동중·세명고·이동고 참가
도시숲·도시 인프라 개선 '눈길'

포항시는 지난 9일 지역 내 청소년과 전문가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고등학교 정책동아리의 활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해 온 이 포럼은 올해 '숲과 길, 도시를 변화시키다'를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동중학교, 세명고등학교, 이동고등학교 등 총 3개교에서 5개 팀이 참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대동중학교 정책동아리 '봄봄'에서는 정단·김주환 학생이 '도시 온도가 경쟁력, 우리 동네 도시숲 프로젝트'

를 주제로 도심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동네 미니정원 △해안가 테마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명고등학교 정책동아리 '그린웨이'에서는 윤유경, 최지원 학생이 '송도의 녹색혁신: 모두를 위한 초록별'을 주제로 청소년의 관점에서 송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인프라 개선,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해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승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녹지확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포항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한 소중한 의견에 대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보령 머드축제 행사서 울릉도·독도만의 무한매력 널리~

울릉군,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
전시관 열어 특산물·독도 홍보

울릉군이 보령에서 열리는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에메랄드 울릉도! 민족의 섬 독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보령 머드 테마파크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 주제는 '우리 섬, 좋다'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됐다.

경북도의 유일 도서군인 울릉군은 전용 전시관을 열어 지역의 매력과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체험형 이벤트 존을 운영해 행사



장을 찾는 보령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울릉도·독도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지난해 설군 이래 첫 국가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취소되는 아쉬움이 너

무 컸다"며 "섬 지역 간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자 지난 2017년에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보령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울릉군이 섬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축하

사절단을 참여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날 기념식에서 섬 발전에 공헌한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영천, 외국인 계절근로자입국
절차간소화로 적기 농가 배치

영천시-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른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첫 입국했다. 이번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은 5월 3일 영천시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체결한 MOU협약에 의한 것이다.

이번 MOU방식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기존의 근로자와 달리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증발급 소요 시간이 대폭 감소했으며 신청 후 2주 만에 입국해 농가가 원하는 적기에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청도군, LPG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민 생명 보호 '앞장'

오는 10월까지 3000세대 대상
현황관리·예방교육 등 수행

청도군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산서지역(각남, 풍각, 각북, 이서)에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300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고 관리가 취약한 단독주택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안전관리 업무대행 사업자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및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안내 △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철거, 배관 막음조치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 민원에 대한 처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산동지역(청도, 화양, 매전, 금천, 운문)의 LPG

사용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에서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000세대를 점검, 가스누출 등 부적합시설 195건을 확인해 시설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잠재적인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하수 군수는 "가스안전관리 대행 사업으로 잠재적 사고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추진,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업무 법적 사항·역량 강화 중점
사업장 유해 요인 개선 실무 지도

울진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울진군은 지난 4월 한 달간 전체 팀장 158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5월 29일부터 3일간 대회의실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 교육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군은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3단계 상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중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자율적·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교육에 관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는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북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91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윤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성주 성박숲, 보라빛 물결치는 맥문동 '눈길'

지역 대표 국가유산 '명소화' 삶+쉼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 모니터링으로 지속 정비·관리

■ 성박숲, 오백년 왕버들과 보라빛 맥문동으로 전국 명소화

성주 경산리 성박숲은 도심에 위치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곳으로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천연기념물)이다.

짧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노거수 왕버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한껏 팔을 벌려 안아도 다 안을 수 없는 아름답디 왕버들 51그루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더러는 오랜 세월 뺏어낸 거칠고 구불구불한 굵은 가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받침대에 의지하고 있는 나무의 모습도 하나의 풍경이다. 가지를 덮은 이끼는 고목에 신비한 기운을 더한다.

무더운 한여름 8월이 되면 이곳은 초록의 싱그러움과 함께 맥문동이 피기 시작해 자주빛 향연이 펼쳐진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개화가 한창인 보라빛 맥문동 꽃과 노거수 왕버들이 이색적인 자연을 모습을 그려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출사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로 만개한 보라빛 맥문동 물결을 만날 수 있다.

■ 미래까지 보존을 넘어 활용가치를 담아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성박숲은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두빛의 왕버들, 해마다 5월이면 성주생명문화&참외축제가 개최되고



8월은 보라빛 맥문동 꽃의 깊고 단아한 풍경이 전국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또한 주말마다 열리는 숲 버스킹, 야간에 펼쳐지는 야간관광프로그램등 다양한 행사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성주군은 성박숲을 비롯한 국가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관광콘텐츠로 적극 개발·활용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성박숲나이트참크닉/ 15일~17일 18:00-22:00-성박숲 Purple! People!음악회 23일 1회(19:00-20:30), 24일/2회(15:00-17:00, 19:00-20:30))

■ 맨발걷기 성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쉼이 있는 공간

연일 점동터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박숲의 맨발걷기 열풍은 좀처럼 사

그라들지 않고 있다. 단순 산책로를 맨발걷기 최적의 길로 동선을 개선하고 모래의 질을 높이는 등 성박숲 산책로 정비와 함께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박숲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삶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우리 국가유산

성박숲은 수목의 생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관리, 치료,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으로 정비·관리를 하고 있다.

왕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재한 맥문동은 음식식물이며 보라색 꽃이 아

름다운 지피식물이다. 이런 식물의 특성을 살려 토양검사, 전문가 자문등으로 왕버들과 맥문동 성장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유산으로 가치 보존을 위해 숲의 비어진 공간들에 왕버들 후계목 30그루 정도와 잔디 및 맥문동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숲의 보존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입소문이 나 있는 성박숲과 맥문동에 이어 '이천 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해 성박숲은 휴식·힐링·문화·레저가 있는 친환경 생태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동국대 WISE, 외국인 근로자 정착 돕는다

경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지역연계사업·평생학습 교류 상호발전 위한 공동협약 체결

동국대 WISE캠퍼스 평생교육원이 지난 7일 경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연계사업과 평생학습의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교육 및 사회적응·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정착지원, 상담, 통역

등의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인력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 및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영찬 원장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한수정, 종자보전 위한 글로벌 MOU 강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종자보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한수정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타지키스탄 콜롭식물원(Kulob Botanic Garden, Khatlon Scientific Cent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Tajikistan)이 지난 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기관은 △종자보전 네트워크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중대양성 보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콜롭식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는 시드볼트에 중복보존될 계획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창술 수목원장은 "전문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서아시아 2개국(아르메니아, 조지아)과의 종자 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김학동 예천군수, 열린 행정 펼쳐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호명읍 신도시서 토크 콘서트 열어 지역 이슈·정책 방향 상호 공유

예천군은 지난 10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는 호명읍 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콘서트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실·과장들과 주민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김학동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토크 콘서트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영대회와 전시회가

열려 함께 어울리며 주민간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김학동 군수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로 주민들이 군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뿐더러 주민의 목소리로 직접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다"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군민 가까이에서 열린 군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별로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주)쓰리랑, 구미 장애인에 3D 이름표 '선물'

구미 소재 (주)쓰리랑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이름표 143개를 구미시장 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했다.

이에 김휴진 사장, 정미영 (주)쓰리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장애인을 위해 직접 제작한 3D프린트 가방걸이 이름표 전달식을 가졌다.

정미영 대표는 "우리의 기술이 지역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휴진 사장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기업이 지역 사회에 있어 앞

으로의 지역복지발전에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주)쓰리랑은 지난 2020년 경력단절 여성들이 창업한 사회적 기업으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현재 구미시 관광 캐릭터 굿즈의 디자인 및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외영기자ub0104@hanmail.ne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종합 일간지
경상투데이
운영위원회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누적 매출 20억 달성

전용 상품권 출시 등 활성화 노력 여성농의 안정적 소득증대 도모 온심마켓 입점, 배송서비스 시행 유통 체계 개선, 전략적 사업 추진 이달 중순에 감사 사은행사 진행



영양군이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도약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개장 이후 4년여 만에 누적 판매 20억 원을 넘은 로컬푸드직매장이 이달 중순에 감사 행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중소여성농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용 상품권 출시, 꾸러미 상품 출시 등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온심마켓'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입점해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배송서비스도 시행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장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영양군

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개장 후 4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20억 원을 달성했다. 다른 지역 로컬푸드직매장 실적에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지역농협과 연계, 법인(재단)이 운영하고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는 다른 지역 매장과는 차별성이 크다.

더군다나 군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

는 것이 어려움이 큼에도 100여명의 출하자와 함께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약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아울러 영양군 로컬푸드를 아껴주신 소비자에 대해 8월 중순에 '사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니 로컬푸드직매장을 자주 둘러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도창 군수는 "푸드플랜을 연계하지 않은 로컬푸드직매장은 영양군이 유일하고 직영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신 출하자와 소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영양군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생산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지역농산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욱 도약하고 성장하는 영양군 유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iM뱅크, 하반기 경력 전문 직원 공채 22개 분야... 디지털·ICT 경쟁력 강화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ICT분야 경쟁력 강화 및 각 분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마케팅 기획 △UX/UI △빅데이터시스템전문가, AI개발전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등 총 22개분야에서 경력 전문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iM뱅크(아이엠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며 전형절차는 각 부문별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 검진 순서로 진행된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비대면채널인 iMBANK앱의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분야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전문직 공채 채용에서도 디지털마케팅부터 개인·기업뱅킹, UX/UI, 종합지급결제 업무 등 업무 전반에 있어 경험 있는 전문직원을 채용해 iMBANK앱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시니어 프로' 채용 분야 확대도 눈에 띈다. 기존에도 기업영업직점장, 전문심사역 등의 일부 업무에 금융권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력직 채용이 진행됐었는데 오랜 금융권 재

직에서 기반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금번에도 채용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역외점포인 원주지점 지점장에 타행 출신 퇴직 직원을 채용하는 등 '시니어 프로' 업무 영역을 확장 중인 iM뱅크(아이엠뱅크)는 여신감리업무 및 기업개선포인트, IT감사 전문직 등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직무에서 앞으로 퇴직 직원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조직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직종 직무와 인력을 채용하게 됐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출중한 이력을 쌓은 시니어 프로 등 iM뱅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우수 인력의 활용을 통해 채용 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고객 편의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 전문직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M뱅크(아이엠뱅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관광상품 라이브커머스에서 '가을 여행' 미리 준비하기

지난달 판매매출 2억 달성 '큰 호응' 8~9월 '앵콜방송 특별기획전' 진행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이하 '문예진흥원')에서 대구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다정다감 대구관광상품 온라인 판매기획전'이 판매 12회차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하며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다정다감 대구관광상품 온라인 판매기획전'은 지역 관광 사업체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해 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본 사업은 이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 채널의 다각적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매기획전 15회와 앵콜방송 특별기획전 5회를 포함해 총 20회로 진행된다.

대구시와 문예진흥원은 지난달 1일

바르미호텔 인터블로그 숙박 상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번의 판매기획전을 진행했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상품 구성을 앞세워 라이브커머스 매회 차 평균 시청자 수 30만명 조기 상품 판매 완료 등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과 9월에는 앵콜방송 특별기획전 5회를 포함해 총 8회차 방송이 예정돼 있으며, 다가를 추석 명절과 대구에서의 가을 여행을 풍성하게 해줄 상품으로 꾸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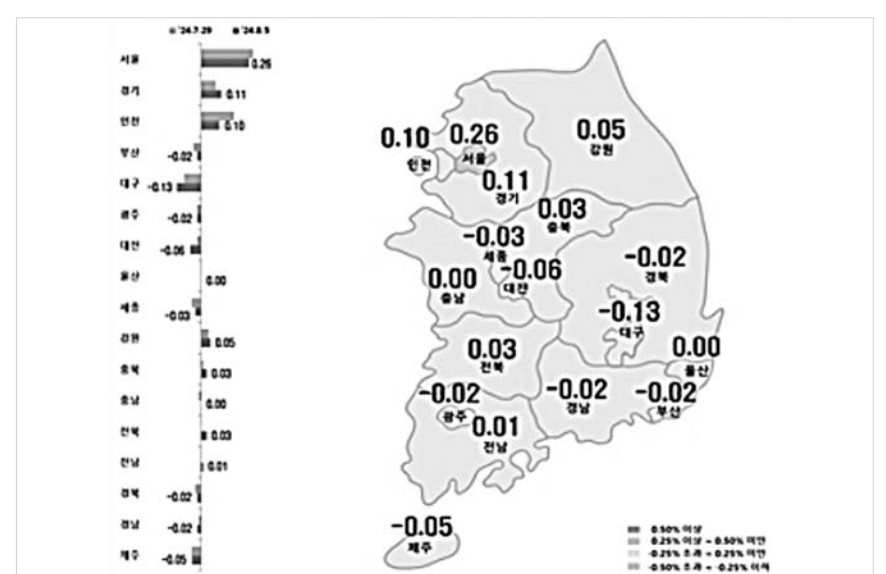
특히 이번 앵콜방송 특별기획전에서는 상품 구매자에게 오는 10월 4일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로 개막하는 '제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메인

오페라 관람권을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

기획전 방송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관광라이브커머스 공식 인스타 계정(@visitaegu_l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다정다감 대구관광상품 온라인 판매기획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획전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대구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남은 판매기획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브이에스팜텍, 방사선 민감제 美FDA 유통 2상 임상 승인

케이메디허브, 스케일업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개발을 지원한 브이에스팜텍의 방사선 민감제(VS-101)가 美FDA 유통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브이에스팜텍(대표 박신영)은 지난해 7월 미국 FDA로부터 두경부암 대상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1년 만에 적응증을 유통암까지

확대했다. VS-101은 방사선 치료 시 병용 투여해 항암 증진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1상 및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박신영 브이에스팜텍 대표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년 이내 방사선 민감제의 기술 수출을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메디허브는 브이에스팜텍의 국

내 임상 투여 및 미국 임상 2상용 방사선 민감제 의약품 생산을 지원했으며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을 통해 단분자 기반 차세대 약물 스크리닝 기술 활용 신규 항암제 개발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은 우수 기초연구성과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 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와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이 운영한다.

케이메디허브는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의 운영지원기관으로 과학제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를 활용해 신약개발 컨설팅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유망 바이오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38주째 '뚝'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38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8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3% 떨어져 4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대전(-0.06%)과 제주(-0.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셋째주(-0.01%)부터 시작된 내림세가 38주째 이어졌다.

매매가 하락은 북구(-0.21%) 동천동과 읍내동, 달서구(-0.15%) 월성동과 상인동, 남구(-0.13%) 봉덕동과 이천동에서 두드러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0.11% 하락해 43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달서구(-0.22%)는 용산동과 월성동, 북구(-0.17%)는 태전동과 구암동, 남구(-0.11%) 봉덕동과 이천동 위주로 하락 폭이 컸다. 달성군(-0.09%)도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스

상주 여성농업인, 저출생극복 '힘'



(사)한국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에서는 지난 8일 상주시 시민의 방을 방문해 상주시 저출생극복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식은 조유경 상주시 연합회장을 비롯한 감사 및 사무국장 등 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상주시 저출생극복성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유경 회장은 "어려운 농업현실에도 온정 나눔에 함께 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으로 상주시 저출생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땅과 우리 맘의 진심함을 믿고 농업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의성 다인면, 어르신 이불 '뽀송'



의성군 다인면은 지난 8일 덕미리 경로당에서 의성군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 서비스로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사랑의 이동세탁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이동세탁은 폭염의 날씨로 인해 수거로 진행됐으며 이장님과 부녀회 봉사자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 및 세탁이 힘든 주민들의 침구 25채를 수거했고 당일 세탁과 건조 후 각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승을 이장은 일일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며 "가마솥 폭염날씨 속에서도 마을 주민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다인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김천 강소기업 (주)유니캠, 이달의 기업 '눈길'

친환경 제품개발 등 긍정 평가
중소 운전자금 한도 우대 혜택



김천시는 이달의 기업으로 (주)유니캠을 선정하고 지난 9일 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 및 회사기 계약식을 했다.

지난 1992년 경기 광주에서 설립된 (주)유니캠은 1994년 김천 감문농공단지로 이전하고 품질혁신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와셔액과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전산화된 자동차용 화학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김천 지역의 강소기업이다.

(주)유니캠은 높은 기술력으로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국내 차량 제조사들의 순정품 및 카포스, 에너지저장 와셔액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며 몽골, 러시아 등으로 수출량을 늘려가며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와셔액을 개발해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김중섭 시장은 "(주)유니캠의 이달의 기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감사드리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 일자리 창출 정도,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우대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경주교도소 교정협, 시원한 여름나기 '응원'

혹서기 수용자 건강 위해 얼린 생수 1만병 지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각종 작업과 교육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난 9일 경주교도소에 생수 1만병을 지원했다.

이날 기증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뒀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박은옥 소장은 "수용자들이 건

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4일에도 생수 1만병을 기부하는 등 해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시원한 여름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 지체장애인 복지·인권 향상 '한마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2일 3630지구 7지역 경주불교로타리클럽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과 상호증진관계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상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오승열 회장은 "경주 지역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며 이번 협약

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열 지회장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어준 불교로타리클럽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쌍방울-비비안, 영양에 이웃사랑 '솔선수범'



지난 8일 (주)쌍방울과 (주)비비안은 영양군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내의, 팔토시, 마스크 등 (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형석 (주)쌍방울 대표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손영섭 (주)비비안 대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부물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동 정

NEWK-2 홍보관 준공식 참석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오후 6시 야양기차길에서 개최되는 NEW K-2 홍보관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고용활성화·일자리창출 협약식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후 3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기반 고용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



최기문 영천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민선8기 영천시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다.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확충 보고



윤경호 청송군수는 12일 오후 3시 군청 미래도약실서 열리는 청소년수련관 야외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청년브랜드팀 탐색 지원사업 보고회



박현구 봉화군수는 12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4년 청년브랜드팀 탐색 지원사업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다.

성주, 어르신 한글교실 졸업 촬영



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8일 경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마을학교 한글교실 졸업사진 촬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마다 우리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성주읍 경산리 마을이 우리마을학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한글, 미술, 노래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는 10월 수료식에 앞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앨범 사진을 찍으며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김일호 기자hoyat1515@daum.net

구름계곡 물따라 바람따라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유산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연점유?
인동 권씨 문중에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로 계곡위의 봉주대에 자리해 폭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자 앞에는 약300년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 가을이 되면 화려한 단풍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 모습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01 구름을 걷는 선비	프로그램	내용	시간
	구름 속으로	서원 및 배향인물에 대한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의 다도·서예체험	30분
	백성과 자연을 사랑한 선비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국악공연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2 구름속의 선비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시간
	구름 속으로	문화유산의 불과 관련된 설명과 지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복 체험	30분
	구름 플로깅	폐현수막 주머니를 이용한 플로깅 활동	30분
유연점유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다도명상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3 기미를 알고 권도를 행하는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내용	시간
	인문학 강의	서원의 기능과 배향인물을 통해 그 시대상을 배우고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의	10:00 12:00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년 3월~11월 신청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김산문화재단 후원 국가유산청·경상북도·경주시



고령군은 지난 9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 발생 등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 지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온열질환 및 사고에 대비하고자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지역내 건강취약계층 2000여 가구 및 건강취약자를 30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전화 및 가정방문, 어플리케이션 알람을 통해 폭염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고령군보건소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령군민 여러분도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울진, 양봉능가 꿀벌관리 지도



울진군은 지난 8일 영덕울진축협유통센터에서 지역 양봉능가 8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꿀벌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몇 년간 꿀벌붕괴로 인한 양봉능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꿀벌붕괴에 적기에방과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각 능가에서 관심있어 하는 여름철 꿀벌 관리요령과 질병방제방법 등 현장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돼 꿀벌 능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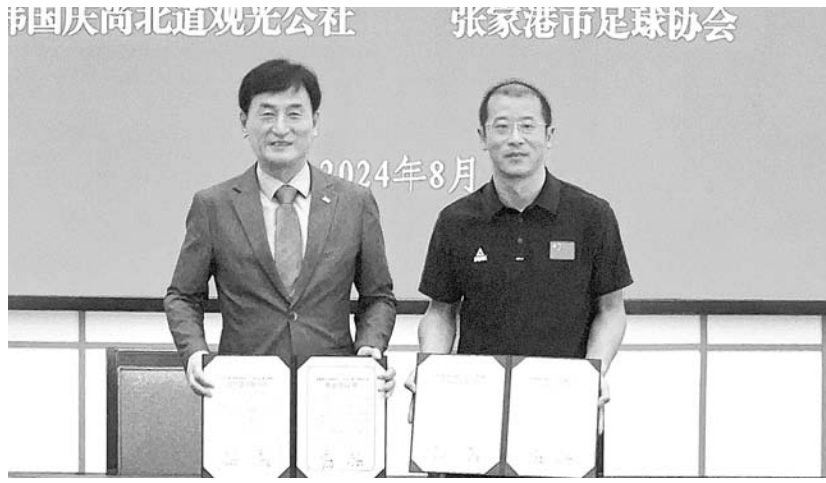
한편 군에서는 올해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해 꿀벌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대한 구제약품을 양봉능가 160호에 무상 공급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봉능가의 소득향상과 능력제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북문화관광공사, 中 장자강시와 교류 ‘물꼬’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광 협의 축구협회와 경북 방문 업무협약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국 장자강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방문해 상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협의하고 장자강시축구협회와는 경북 방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자강시는 인구 150만명의 장강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기아 등 한국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저우인 장자강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부국장, 관광자원개발과장, 홍보마케팅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김일근 경영개발본부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경북의 문화, 관광, 체

육 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장자강시 축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은 유소년 축구단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장자강시축구협회는 장자강

시내 4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큰 협회이다.

리펑푸 장자강시 문화체육관광국 부국장은 “고3인 딸을 내년에 영남대학교로 유학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교생 4600명인 장자강시의

봉황고등학교를 방문해 장자강시 교육국장 및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학교 교류 프로그램 및 수학 여행 경북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봉황고등학교 축구단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경북을 방문해 경산시 소재 대학교를 견학하고 경주 관광지를 체험한 바가 있다.

특히 봉황고등학교 학생 중 6명은 경산의 대학교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장자강시축구협회와의 협약 및 관광국과의 협력으로 경북의 다양한 관광 및 스포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축구단 등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청송, 온열질환 예방 관리 강화



청송군은 폭염에 대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은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의 기초 건강상태 측정하고 주 1회 안전전화 등을 실시,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하거나 응급처치를 받도록 폭염 대비 교육을 시행 중이다.

주요 건강관리 교육 내용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폭염 시 가까운 경로당 및 그늘진 곳에서 쉬기 △더운 시간대는 휴식하기 △매일 날개 및 기온 확인하기 등이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에스아이티(주) 대표, 기부로 고향 울진 ‘응원’

울진군은 지난 6일 울진읍 대흥리 출신으로 자동차 프레스 및 금형제조 사업을 하는 전제중 에스아이티(주) 대표가 울진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에스아이티(주)는 지난 1999년 프레스 금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현재 자동차 및 전자부품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베트남, 중국, 인도에도 현지 법

인을 설립해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유공자 산업포상 시상금 500만원을 울진군에 기부한 전제중 대표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울진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출향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울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산양면 이장들 “제2중앙경찰학교는 문경으로”



문경시 산양면에서는 지난 8일 산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30개 마을 이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8월 1차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장회의에서는 시정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 전달 및 주민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경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중앙경

찰학교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실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규 회장은 “앞으로도 산양면 이장들이 주축이 돼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를 위한 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시정 및 면정발전에 이장들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청도 농기센터, 건강한 장보기·식습관 ‘앞장’



청도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건강한 장보기’란 주제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다.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이하 231가구에 국내산 채소, 과일 등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

처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주관했으며 농식품바우처 제도 이해 및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올바른 장보기, 신선농산물 섭취 등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의성, 응급대처 심폐소생술 실습



의성군은 지난 8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읍·면 새마을부녀회장 18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골든타임의 중요성,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응급처치 기본 요령에 대한 이론 학습과 응급상황별 대처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이 이뤄졌다.

이종녀 부녀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령화된 우리 의성 지역에서 혹시나 발생할 심정지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부족하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대구문화예회관, 원로작가 곽훈 특별전... “독자적인 작업 세계로”

13일 개막... 9월 26일까지 개최
작가의 정체성·근원적 성찰 담긴
50여년 화업 축적·전이 과정 주목
찾잔 Teabowl 등 4개 섹션 구성
초기작~신작 망라 대규모 전시

대구문화예회관(관장 김희철)은 올해의 세 번째 기획전으로 '곽훈:선협의 전이'를 13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대구문화예회관 미술관 1·5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대구문화예회관은 지난 2008년부터 대구 화단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작가를 선정해 집중 조명하는 회고전을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에는 50여년간 한국적인 정서와 불교 등 동양 철학을 근간으로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성과 매체를 다루며 독자적인 작업의 세계를 구축한 곽훈 작가를 선정해 전시를 마련한다.

지난 1941년생의 대구 출신인 곽훈 작가는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 실학미술 1세대로 '한국 아방가르드협회(A.G)'의 창립멤버로 참여했으며 1970년에 첫 개인전을 서울 신문회관에서 열어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지난 1975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81년에 L.A.시립미술관에서 신인 작가들을 소개하는 '신

진 1981(Newcomers.81)'를 통해 미국 화단에 데뷔하게 됐다.

작가는 미국에서 먼저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으며,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첫 개관 때 대규모 설치 및 퍼포먼스 작품인 '겹/소리-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올해 4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으로 베니스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재현됐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정체성과 근원적 성찰이 담긴 작가의 화업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전이되는 과정들에 주목했다.

이번 전시 제목 '선협의 전이'에서 '선협'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경험이 없이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작가에게는 우리가 각자 지니고 태어난 본연의 원초적인 의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이'는 원초적 의식을 토대로 작업으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작가는 지금까지 '선협적인 것'에 의존해 50여년의 화업을 전이해 왔으며, 작업의 주제에 따라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먼저 한국적 정서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소재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공들이 만들었던 '찾잔 Teabowl' 시리즈를, 이어서 동양예술의 성립 요소인 기(氣)를 예술화시킨 '기氣' 시리즈와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적 흐름을 시각화한 '겹Kalpa, 겹Kalpa/소리Sound' 시리즈를, 그리고 마지막으

로 고래를 간절하게 염원하던 조상들의 사머니즘적 믿음을 형상화한 '할라잇 Halaayt'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적인 회화 연작들과 조각, 영상, 설치 작업을 포함한 신작으로 구성해 작가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동시에 자주 공개되지 않았던 지난 1970-80년대 평면 작품들과 '페루' 연작, 그리고 '할라잇 Halaayt'의 연작선에서 주제를 입체적으로 재현한 대형 장호지 설치 작품 '2250m depth'를 새롭게 공개한다.

또한 별도의 영상 공간에서는 다층적인 시각으로 작가의 예술세계를 짐작해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과 함께 작가가 1970년 신문회관에서 발표했던 전자사운드 작업의 촬영본을 복원해 함께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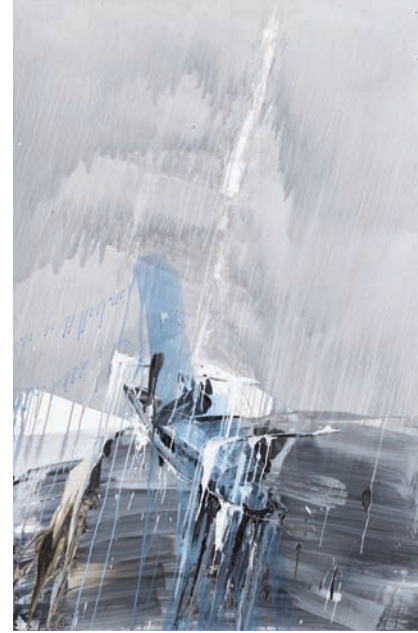
김희철 대구문화예회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곽훈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 심도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그의 작품에서 인류의 원초적 보편성과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오는 9월 중에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작가의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Halaay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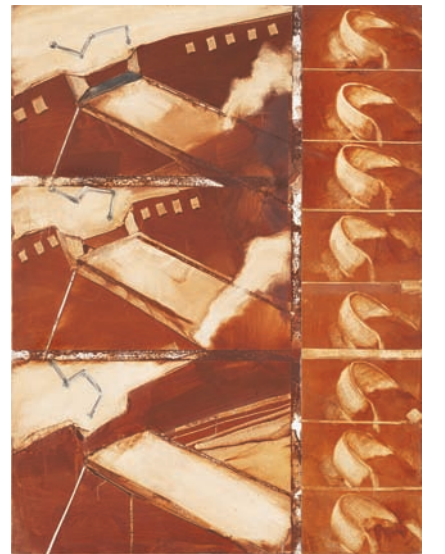
Halaayt, 2024



Chi, 1983



Waterfall, 2011



From soil to soil, 1980

맑고 투명한 건반의 울림, 관객 마음 두드리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5인 “대구로”
국제피아노페스티벌 22·23일 개최

청량한 건반의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을 두드릴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2024 대구국제피아노페스티벌”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안나 불키나(러시아), 안토니오 폼파발디(이탈리아), 마르코스 마드리갈(쿠바), 안 프랜시스 팡(중국), 와엘 파루크(이집트)까지 다양한 국적의 세계적 연주자들이 대구를 찾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제2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라벨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차례로 들려준다.

한번 들으면 잊지 않는 인상적인 선율,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대화, 솔리스트의 현란한 기교 등으로 청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대중적인 작품들로 구성했다.

페스티벌의 첫날인 22일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들로 꾸민다. 전반부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안나 불키나가 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2부에서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폼파발디가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23일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마르코스 마드리갈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로 연다. 현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파가니니는 소품곡의 일종인 '24개의 카프리시'를 남겼다.

후대의 많은 작곡가가 파가니니의 '카프리시' 중 몇 곡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라흐마니노프도 그중 한 사람이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는 서주와 다양한 변주로 이루어진 단악장의 곡이다. 건반 위의 파가니니를 꿈꾼 듯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색채감까지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중국의 피아니스트 안 프랜시스 팡이 선사하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이다. 지난 1927년 라벨이 미국 연주 여행 이후 완성했으며 스페인풍 민속 요소와 재즈 색채가 가미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날레는 맨해튼 음악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집트 출신 피아니스트 와엘 파루크가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장식한다. 그리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

곡으로 노르웨이 민요풍의 청순한 선율, 신선한 화성, 절묘한 리듬 등 소재가 탁월하고, 생기발랄한 정열이 넘친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곡은 장중한 행진곡풍의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서곡이다. 지난 1831년 완성된 전 2막 구성이며, 여주인공 노르마(소프라노)의 비중이 매우 커 '프리마돈나 오페라',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라고도 불린다.

백현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는 "2024 대구국제피아노페스티벌"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클래식 독주 악기인 '피아노'를 주인공으로 한 이틀간의 축제이다. 피아노 협주곡이 공연의 일부가 아닌 전부인 무대로 꾸렸다. 세계 각국의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그들의 개성 있는 연주와 해석으로 명 협주곡을 연이어 감상할 좋은 기회이며 맑고 투명한 음색이 돋보이는 피아노가 여름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국내 최초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예천박물관서 가치와 의의 재조명

예천군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천박물관에서 '국내 최초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의 가치와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동운부군옥' 목판과 고본은 우리나라 최초 백과사전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86년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2022년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된 유물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동운부군옥'의 학술적, 서지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예천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어릴 명의 학계 연구자들이 모여 △ '대동운부군옥'의 서지적 특성과 유물 △ '대동운부군옥'의 내용적 특성과 현재적 의미 △ '대동운부군옥' 목판의 특징과 목서기록 △ '대동운부군



옥'의 유서로서 지위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학동 군수는 "대동운부군옥'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연구자도 감탄할 만한 유물로서 이번에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술적 우수성은 물론 예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진취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수산특화!
참바다맛!
경주바다

경주농수산물공동브랜드
경주이사금

ESAGEUM
경주이사금

칼럼

“4년제는 가야지”... 철 지난 공식에 갇힌 대학정책(下)

변기웅
고려대학교 교수



2558호에 이어= ◆ 경쟁 지향적 정부 정책이 ‘대학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걸림돌

그렇다면 이제까지 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저비용-고효율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까.

필자가 볼 때 먼저 지나치게 대학 간 경쟁에 치우친 정부의 정책이 큰 몫을 했다. 경쟁 지향적 정책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간 적절한 역할 구분과 연계 체계 구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생을 위한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보다는 자기 대학이 생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선택은 언제나 연계와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에 방점이 있었다.

심지어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4년제 사립 대학과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같은 지

역의 거점 국립대학과 중소 규모 국립대학 간에도 연계와 협력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다.

◆ 부처 할거주의...전문대 존폐 위기인데 폴리텍대 우후죽순 신설

이에 더해 정부 부처 간에 존재하는 해묵은 할거주의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대 들어 교육부 소관 전문대학은 대부분 존폐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은 이를 비롯듯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설립돼 왔다. 투입되는 예산도 폴리텍대학 1개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교육부 소관 130여개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

각 지역에 폴리텍대학을 신설하기 전에 권역별로 이미 존재하는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구축돼 있는 공동실습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 2000년대 이후 폴리텍대학의 무차별적 신설이 고용노동부나 폴리텍대학을 넘어 과연 전체 학생과 사회를 위해 타당한 것이었을까.

◆ ‘독표’가 우선인 정치권... ‘이념 차이’를 ‘교육개혁’으로 호도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정책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문제의 본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이들은 말로는 교육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선거에 임하면 ‘소속 정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한다.

패거리 사고(group thinking)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선거 캠프에서 짧은 기간 동안 내 편과 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틀 짓기(framing)를 하면서 이념의 차이를 마치 교육개혁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논쟁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에 도움 되는 좋은 교육정책 나오려면 ‘실용’이 우선돼야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완전히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서로 의견이 다를수록 개방적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을 숙성시켜 나가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파나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 우선돼야 한다. 뉴스1

독자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변동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새로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첫째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및 고공 등 이용 지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임에도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됐으나 철도, 고공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둘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다. 기존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일부 상이유공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제정 및 설치를 권고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셋째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으로 안장된다. 기존에는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소방관의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했으나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 확대에 힘쓰고 있다.

넷째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다.

이로써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섯째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이 제한됐으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자체 규정 정비와 제도개선, 타 기관 협조를 통한 보훈대상자 분들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소속기관인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 역시 보훈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설

전기차 포비아 확산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지하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진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최근 인천 청라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변에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며 일종의 ‘포비아’ (공포증) 현상도 나타난다.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의 지상화 건의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은 현행법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경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럽 등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독일 콜롬바흐 시내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나 5개월간 주차장이 폐쇄된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콜롬바흐시와 레온베르크시는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1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

또 지난 2022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염에 심하게 손상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이를 진압했던 소방관들은 지하주차장의 전기 자동차 금지를 요구했다.

내연기관차에 대비해 전기차의 화재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으로 불 때 화재가 발생하면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이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오는 2026년부터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전기차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배터리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연이은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데 대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에서는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해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정귀문」

고향의 정취 · 향수를 담은 노래로 국민의 심금을 울린 작사가

2024

정귀문

2024

Jung Gwi-moon

Song Festival

가요제

가요제 본선 및 시상식

2024
8/24(토) 19:00~

봉황대 특설무대

초대
가수



우연이/우연히,길



연미연/인생열차



오승대/월지의 밤



주상경/토끼풀 왕관

문의 ☎ 경상투데이 _054.748.0070(기획미디어부)
홈페이지 www.gyeongsangtoday.com

| 주최·주관 | 경상투데이 | 후원 | 경상북도 | 경주 시